

입당송 |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62,1-5

화답송 | 시편 96(95),1-2,7,21-3,7-8,9와 107,1(◎ 3 참조)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2독서 | 1코린 12,4-11

복음환호송 | 2테살 2,14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음 | 요한 2,1-11

영성체송 |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 보세요

김한수 토마스 신부 | 종로성당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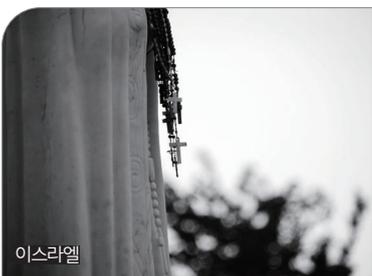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반항기 넘치던 시절, 어른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한두 번씩은 품어 보았을 마음의 소리일 겁니다. 혹은 육성으로 상대에게 날아가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너 사춘기야?’라는 상대의 반응을 여전히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부터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유와 판단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자율적 존재로서의 존중이 요구되고, 자율성이 판단 기준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의 의사에 거스르는 요청과 규정에 ‘왜?’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외부 압박에 대한 거부감은 그렇게 거침없는 반항기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수동성에 대한 시대적 학습의 누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시대의 이해와 흐름을 역행하는 언사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누군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시대에 거스르는 의미를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요구보다 하느님 말씀을 첫 자리에 두려는 사람입니다. 시대에 뒤처지고 바보같이 보이는 수동적 삶을 살아가려는 것은 그것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혼인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건네신 조언을 요한 복음사가가 전해 줍니다. 그 조언에 따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지향에 따라 움직여 보았습니다. 예수님 뜻에 일치하여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느 순간 기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조언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과 지향에 따라 마음과 몸을 움직여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나라의 잔칫상에서 일하는 이들은 주님의 뜻과 일치함으로써 변화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일치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생각, 이해, 고집에서 벗어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뜻을 헤아려 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잔칫상의 일꾼들에게 건네주었던 성모님의 조언대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가려 애씁니다. 그렇게 하느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변화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자그마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느님과의 일치를 ‘여기서’ 시작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과 일치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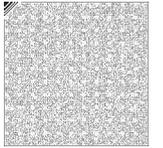
이스라엘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요한 2,3)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곳에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자 성모님이 바로 알아채시고,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하십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 계셨던 성모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이 무엇인지 알아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전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홍덕희 에세스 | 가톨릭사진가회



이서원 프란치스코
한국분노관리연구소장

| 가족 세미나

제일 가까운 사람이면서 가장 먼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가족입니다. 늘 가까이 있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남보다 더 모르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해, 가족들끼리 세미나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온 가족이 모여 세미나를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다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눈치였습니다. 이번에는 10대와 20대였던 조카들에게 가족 세미나를 하면 참석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조카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였습니다. “응, 가족들이 다 모여서 너희들이 발표하고 삼촌이나 고모들이 질문하는 거야.” “야, 재미있겠다, 해요, 삼촌.” 조카들의 호기심과 응원 덕분에 엄마, 아빠들이 동의하여 첫 번째 가족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세미나의 주제를 ‘나의 꿈, 나의 미래(My dream, My future)’로 정해 조카들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온 조카는 뉴질랜드로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는 이야기로 부모는 물론 할머니와 다른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방학에 집에 왔을 때마다 아이에게 그저 잘 있다는 말만 들어오던 가족으로서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가족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 깊은 마음속 사정을 모르고 있었구나!’ 반성이 되었습니다. 조카는 장래 꿈이 디즈니 같은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조카는 온 세상의 땅을 밟아보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고모부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에 조카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만 문제인데요.” 온 가족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뒤 세 명의 조카도 자기 속마음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와 가

족들은 늘 알고 있던 자식, 조카가 아니라 마치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계속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아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가족이 모르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때론 황당하기까지 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외롭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쓸데없이 하냐고 하시던 할머니는 가족 세미나를 마치고, 몇 번이나 이런 가족 모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줄 모르고, 그저 몸 건강하고 헤쳐가리며 잘 지내는 줄만 알았다는 거지요. 가족 세미나 후에 많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있고, 그것을 아는 가족들은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 학생이 자신의 장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단점은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그런 게 아닐까요. 가족을 잘 알고 하느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족 세미나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컷 묵상

무엇이든지 그나
시키는 대로 하라나

요한 2.5



류상애 아베스 수녀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

인간이란 누구이고 무엇인가?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저는 세례 받기 전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느님은 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셨고, 왜 뱀을 창조해서 인간이 죄지를 빌미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만약 선악과가 없었고 뱀이 없었다면 첫 인간이 죄짓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인간이 원죄의 굴레에 빠질 일 없이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텐데, 하느님은 왜 그러셨을까?’

창세기의 인간 창조 과정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자 하시며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지어내셨다고 합니다. (창세 1,26-27) 그래서 하느님께서 훔쳐온 빛의 먼지에 하느님의 숨을 불어 넣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공통점은 영적인 존재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하느님은 영 자체이신 성령이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영 일부가 육체와 합해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창세기의 인간 창조 과정에 주목하며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Homo, Imago Dei)’이라고 답합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유사한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한편으로 위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파스칼(Blaise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규정하는데,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기에 위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과 ‘신과 함께 하는 인간의 지복’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구원될 수 있을까요?

처음 창조되어 하느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근심 걱정이 없었고, 아프거나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인간은 하느님을 거역합니다.

하느님은 왜 이 세상에 선악과와 뱀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만일 하느님이 뱀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거나 죽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한편으로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가르침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에덴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 감으로써 뱀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많은 세계,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결국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은 죄짓기 이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 진리, 생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구원=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이 여정의 목표와 주체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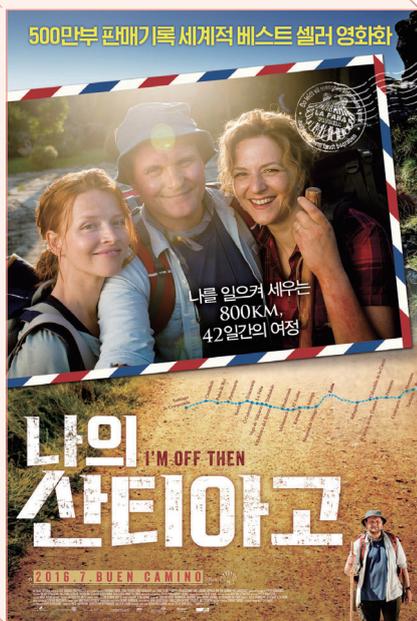
지난 2021년 5월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에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우리 신앙인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어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의 집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돌보고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단순히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자고 호소하는 문헌이 아닙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가 정리한 일곱 개의 「찬미받으소서」 목표는 회칙의 반포 취지와 「찬미받으소서」 여정의 방향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시급히 응답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과다한 배출로 **울부짖고 있는 지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 ② 기후 위기로 전에 없는 위험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며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보호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 ③ **생태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응답**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윤리적인 소비와 투자, 공동의 집 지구에 해로운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철회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 ④ 개인과 가정에서도 **검소한 삶을 지향**하며,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절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 ⑤ 모든 교육의 장에서 **통합적이며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기관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 ⑥ **생태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기도와 전례, 경탄의 시간을 통해서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더 요구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해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 ⑦ 개인의 회심만으로는 공동의 집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국가, 더 나아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신앙 공동체의 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목표들은 가정, 본당·교구, 수도 공동체, 학교·대학교 등의 교육기관, 병원·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다양한 조직·단체, 기업·농업 등의 경제 부문 등으로 분류된 일곱 개의 부문에서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로 인한 악영향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공동의 집 지구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며 작은 이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대교구의 모든 구성원이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익히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찬미받으소서」 여정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여정은 그리스도교 신앙인이자 누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나의 산티아고'

왜, 그 길을 걷는가?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길은 시간이 고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

야만 생깁니다. 길에는 그곳을 지나간 수많은 생명들의 삶과 시간이 스며있습니다. 길은 거기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은 길로 이어져 가다 보면 다른 길과 만나고, 어디쯤에서는 작은 길이 큰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길 위의 날들'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길을 걷는 목적이 오로지 이동이라면, 걷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힘인 두 다리보다는 얼마든지 효율적인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편안히 여행을 즐기 위해서라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갈증과 허기,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며 험한 산길을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나의 산티아고>의 독일 인기 코미디언 하페는 800km의 산티아고 고행에 나섰고, <와일드>의 주인공인 미국 여성 작가 세릴은 장장 4,285km의 아메리카 산악길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고, 또 걷고 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하페에게 그것은 휴식도, 여행도 아닙니다. 순례자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길을 선택하든 길은 걷는 자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페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 환희와 절망이 만들고 지킨 멀고 험한 산티아고 길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발자취가 남은 성스러운 길은 어떤 약 속도 하지 않은 채 가진 것부터 모두 버리라고 말한다. 배낭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듯 욕심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시간까지 버리라고. 앞서 그 길을 걸었던 브라질 소설가 코엘류도 "늘 우리를 이끌어주는 손이 있음을 믿고 매 순간 우리 시간을 온전히 내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와 고통과 눈물의 여정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조금씩 믿음과 기쁨과 깨달음으로 변해갈 때 길은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 마른하늘에 베풀어 치듯 하페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는 그것을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도 그와 같은 속도로 걷고, 헉헉대고, 쓰러지면서 하루하루를 함께 합니다. 빨강머리의 영국 여자 앤, 마음이 넉넉한 뉴질랜드 중년 여성 실라도 함께 만납니다. 영화가 이따금 담아낸 감탄을 자아낼만한 풍경 역시 눈이 아닌 마음에 담습니다.

길은 사유와 자유를 이어줍니다. 셋길을 어슬렁거리도, 가다가 멈춰서도, 가던 길을 되돌아와도, 길을 잃고 헤매도, 거기에는 성찰과 사색과 주님과 대화의 대화가 있습니다. 영화와 책이 아무리 느리게 걷더라도 그것들을 오롯이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나가는 길, 글로 걷는 길보다는 느리고 힘들지만 직접 그 길을 걸으려 하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인생이 다르듯 그 걸음 또한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조차 멀어지면서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후회는 늘 머뭇거림에서 오나 봅니다.

서소문성지에서 만나는 러시아 이콘



정응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학교 성미술 담당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성미술품의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성미술품을 기도의 도구로 활용하여 신앙의 후손들에게 잘 보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임인년 2022년에는 서울주보에 매월 한 번씩 교구나 성당에 있는 성미술을 소개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어 일상과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날을 떠올리며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정담을 나누던 때를 새삼 그리워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평범하게 지냈던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나날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가방을 둘러메고 여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국내 여행 뿐 아니라 해외여행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러시아에서 온 교회 미술품 전시회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주보에 소개하려 합니다.

새해 첫 번째로 소개하는 <러시아 이콘, 어둠에서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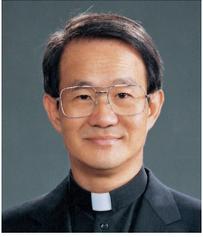
을>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2월 27일(주일)까지 운영되는 전시입니다.(월요일 휴관) 전시된 80여 점의 이콘은 모스크바 이콘 박물관에서 온 것으로 15세기부터 19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이콘에 담긴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 성경과 성인의 삶, 성화 벽과 성소의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형상을 뜻하는 이콘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교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예수님과 성모님, 성인·성녀, 교회의 가르침을 일정한 양식의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동방교회 전례에서 다양한 이콘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신자들이 신앙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성지인 서소문성지에서는 이번에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이콘 외에도 순교자들과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상 공원에는 <순교자 현양탑>(조광호 신부 작, 1999년)이 우뚝 서 있고, 지하 입구에는 순교자를 기리는 조형물과 <수난자의 머리>(최의순 작, 2019년)가 있습니다. 지하층의 상설전시관에서는 신앙 선조들이 남긴 책과 글 등 고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위로의 방’이란 뜻을 지닌 ‘콘솔레이션 홀’, ‘하늘 광장’, ‘하늘길’, ‘성 정하상 기념 경당’이 있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러시아 이콘, 어둠에서 빛> 전시회와 상설 전시관을 둘러보며 성지 순례를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어느새 신앙과 거룩함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송광섭(베드로)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송광섭(베드로, 85) 신부님께서 지난 1월 1일(토)에 선종하셨습니다. 송광섭 신부님은 1938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65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혜화동·당산동·법원리성당(현 의정부교구), 군중, 돈암동·금호동성

당 겸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양재동성당, 성령쇄신 전국 회장, 사목국장, 삼성산 성령 수녀회 설립 준비 및 지도신부, 삼성산 피정의집 겸 사랑의 성령봉사회 지도신부로 사목하시다가 2014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1월 3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월 18일(화)~25일(화)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미사 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7년 1월 18일 박항영 프란치스코 신부(38세)
- 1956년 1월 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 2004년 1월 23일 김정진 바오로 신부(82세)
- 2009년 1월 23일 홍인수 세례자요한 신부(67세)
- 2019년 1월 19일 장홍선 요셉 신부(81세)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서울대교구 어플리케이션 '가톨릭 서울'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본당 커뮤니티 활성화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본당단위로 운영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톨릭 서울'을 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가입 방법과 이용 방법은 유튜브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다운로드 방법: 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 검색창에 '가톨릭 서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② 옆의 QR코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교구청일일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문화관 2층 소성당(명동)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제132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때: 2월7일~3월28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비대면식 온라인 강의(Zoom)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신청): 02)727-2431, 02)773-1050(50명)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 참조

가톨릭사회교리개론	박동호 신부	인간과 노동	김시문 신부
사회교리의 역사적발전	정수용 신부	경제생활	김승연 신부
사회교리 교황 담화문	박동호 신부	환경·생태계	백종연 신부
인간과 인권	김녕 교수	정치·국제공동체	하성용 신부

병원사목위원회 온라인 유튜브 미사

내용: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때: 매주(금) 15시(실시간 미사) / 문의: 02)727-2073
미사지향 신청: camillus.seoul@gmail.com
유튜브 검색 → '서울대교구 병원사목위원회'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최영수 필립보'
때: 매달 셋째주(화) 1월18일 오전 10시(170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성당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최형규 개인전: 1전시실
2021년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신입회원전: 2전시실
보비수준 3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월19일(수)~24일(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마음의복讎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03차 미사 1월1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교구 황주 분당, 사창 분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2월9일~7월6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1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인준단체 알림

모임

낙태 후 화해 피정

때, 곳: 2월4일(금)~6일(일), 명상의집 / 회비 없음
문의: 010-4120-1796 착한목자수녀회

하느님의 어머니 묵상 피정

때, 곳: 1월24일(월)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10-9620-4820 마리아학교

어르신 선종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1월25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국악성가연구소 해외 성지순례 / 문의: 02)558-2004

때: 5월9일~23일(14박15일) / 인솔: 강수근 신부
곳: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메쥬고리에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1월20일~23일·2월10일~13일·2월24일~27일(각 3박4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우이동)

아이 엄마 아빠를 위한 정체성 피정(ICPE)

대상: 자녀 동반 가능(초등생까지) / 문의: 010-3889-1272
때, 곳: 2월19일(토) 10시~20일(일) 16시, 마리사 타 교육관(합정) / 회비: 8만원(자녀 2만5천원)

침묵·대월기도 영성수련

때, 곳: 1월21일(금)~23일(일)·2월4일(금)~6일(일)·2월18일(금)~20일(일)·3월11일(금)~13일(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주최) / 홈페이지: www.brotherhood.or.kr
문의: 032)465-0835, 010-2505-4702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때, 곳: 1월21일(금)~24일(월)·2월25일(금)~28일(월)·3월11일(금)~14일(월), 도미니쿠수도회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눈꽃산행 피정: 2월9일~9일, 2월12일~14일, 2월19일~22일, 2월26일~28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8차	1월28일(금)~2월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9차	2월18일(금)~26일(토)	
제100차	3월18일(금)~26일(토)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3월6일~8일, 3월17일~19일, 3월26일~28일,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과 영성교육(구, 기도모임)

내용: 말씀(영성교육)과 파견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2월6일(일) 13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3층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강좌

내용: 마르코 복음 / 문의: 010-6287-9753
때: 3월3일(목)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곳: 성바오로 수도회 본원 / 회비 없음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2월9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2022년 영적돌봄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 모집

때: 2월5일~3월5일 매주(토) 10시~16시50분 / 회비: 25만원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원목자 및 일반인
교육방법: 실시간 화상 강의(1~4주차), 대면 강의(5주차, 변동 가능) / 모집기간: 1월21일(금)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hospice.catholic.ac.kr) 참조
문의: 02)2258-7550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홈페이지: oakinternational.co.kr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백신 접종 가능 / 문의: 02)2258-8983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예수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프로그램 '영신수련 강좌'

내용: 영성, 교리, 신학적 기초와 심화학습, 수행으로 초대
담당: 권효섭 신부 / 홈페이지: http://inigopress.kr
때: 2월8일(개강 예정)부터 매주(화) 14시~16시
곳: 비대면 온라인 / 1월28일(금) 16시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02)3276-7799 (월~금) 10시30분~16시

김대건 안드레아 성서 아카데미(읍기)

주제: 읍기 / 강사: 박영식 신부(반포4동성당 주임)
대상: 신자 및 성서에 관심 있는 분(선착순-백신접종 완료자로 방역지침상 허용 인원) / 회비: 4만원(교재비 포함)
때: 2월3일~4월28일 매주(목) 11시~12시30분(13회)
곳: 반포4동성당 대성전 / 1월22일(토)까지 직접 방문 접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482-2255 반포4동성당 사무실

성경속에서 나를 만나다(전교가르멜 수녀회)

대상: 여성 신자 / 7회, 비대면
회비: 5만원 / 문의: 010-2037-9262

첫째·셋째주(화)	2월15일부터 10시~11시30분
둘째·넷째주(화)	2월8일부터 20시~21시30분
첫째·셋째주(목)	2월3일부터 21시~22시30분 / 미혼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좌(사전 녹화본)

3월 개강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동안 수강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매주(월)	권오면 신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매주(수)	홍기명 교수
성경대하-요한복음1·2·3	매주(수)	송봉모 신부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매주(목)	이규성 신부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2월15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레 3년 넘은 견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지 않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모임

수락산성당 청년성가대 반주자 모집

때: (일) 18시(청년미사) / 문의: 02)934-0081 사무실

미사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1월28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1월17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유경춘 주교 / 문의: 02)749-4596
 때, 곳: 1월24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1월23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인간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코메스심리상담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 / 가족, 부부, 갈등, 심리-대면·온라인·전화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문의: 041)934-7758, 010-3076-7489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월25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직원모집

한국 카리타스 직원 모집

분야: 법인 회계와 후원 관리, 홍보 업무 1명
 1월23일(일)까지 이메일(caritas@cck.or.kr) 접수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전진상의원 간호사 모집 / 문의: 02)802-9311

호스피스 병동 3교대 간호사, 나이트 간호사

등촌7중합사회복지관 언어치료사 모집

근무: (월~금) 택 2일 13시~18시 / 문의: 02)2658-6522
 대상: 언어재활사 2급 이상 보유자

한강성당부설 대건유치원 차량기사 모집

대상: 대형버스 자격 소지자이며 가톨릭 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02)790-5016
 이메일(daegunk1@hanmail.net) 접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홍보·사업기획, 운영 / 1년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견진성사 받은 초대졸자, 디자인 프로그래밍 활용 가능자, 연간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1월23일(일)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이후 면접 / 문의: 02)742-9473

전농동성당 직원 모집 / 문의: 02)2241-7841, 2

분야: 본당근무(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필수: 운전면허 보통 1종, 컴퓨터 활용, 한글워드, 엑셀 사용 가능하신 분) / 업무: 평화묘원 관리 외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채용시까지 본인 방문 접수 및 우편(우 02548,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9길 25 전농동성당 사무실)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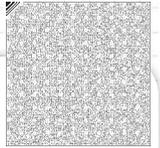
서울주보
 게재신청
 안내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1월22일(토) 14시	수도원	010-4241-1210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수녀회	1월23일(일) 14시	분원(삼선교)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앨범
아버지
(디지털 싱글앨범)

김상균 연주
바오로딸뮤직 | 12:17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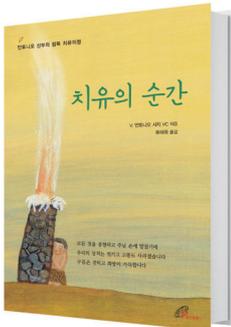
새롭게 제작되는 '편안한 피아노 성가' 시리즈는 신자들이 즐겨 부르는 가톨릭 성가와 생활성가를 재즈 화성의 피아노로 편곡하여 상큼하고 평온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담고자 한다. 이노주사 창단 멤버이자 생활성가곡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김상균 라우렌시오 교수의 첫 앨범이다.



신간
이냐시오
「영신수련」 묵상

칼라너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62쪽 | 2만2천원
문의: 02)740-9718

예수회원인 대(大) 신학자 칼라너 신부가 피정 강의로 '영신수련' 책의 개별 주제들에 대해 신학적 설명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출판이 된 책이다. 이 책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 머물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더욱 깊게 하려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치유의 순간

V. 안토니오 사지 VC 지음
바오로딸 | 324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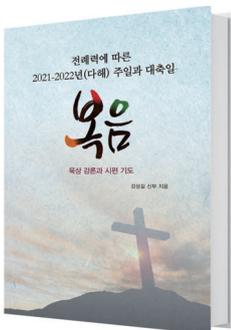
「아주 특별한 순간」의 저자 안토니오 신부의 두 번째 침묵 치유피정 강론집이다.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두면서도 다양한 예화와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그의 강론은 제단을 통해 치유와 구원을 체험하라고 초대한다.



신간
작은 정성에 담긴
영원한 기쁨

김홍주 지음
생활성서사 | 288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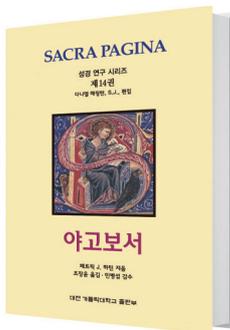
당신은 하루의 얼마 동안을 하느님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짧지만 머릿속에 깊이 남는 김홍주 신부의 묵상 글을 통해 매일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일상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책이다.



신간
전례력에 따른 2021-2022년
(다해) 주일과 대축일
복음 (묵상 강론과 시편 기도)

김성길 지음
기쁜소식 | 416쪽 | 1만8천원
문의: 02)762-1194

2021년(나해)에 이어 2021-2022년(다해) 주일과 대축일 복음 묵상 강론과 시편 기도가 나왔다. 여전히 비대면의 낯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책을 징검다리 삼아 복음과 시편을 통해 신앙에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간
성경 연구 시리즈
제14권 야고보서

패트릭 J. 하틴 지음
대전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488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성경연구 시리즈 제14권 야고보서가 출간됐다. 야고보 서간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도외시된 책들 중 하나이다. 이 주석서를 통하여 저자는 야고보서가 초기 그리스도교 내의 주요한 전통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초기 교회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얻도록 돕는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월 1일 ~ 1월 9일 : 343,444,035원)
누계 : 2,908,135,423원

2021년 하반기 본당 수익금 : 343,314,035원

이윤성 : 100,000원 | 익명 : 3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미사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 ※일요일 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성전 입당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별도로 적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토요일		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 2021년도 제 단체 정기 감사

- 감사대상 : 본당 모든 단체 (※자체 운영 단체도 포함)
- 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 감사일시 : 2022년 1월 15일(토)~16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사목협의회실
- 구비서류 : 금전출납부, 증빙서류철, 수입지출 현황, 통장 등

◎ 명동대성당 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 대 상 : 세례를 받은 35~45세 교우
- 문 의 : **평화의 모후 Cu.**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합 진행 중 (추후 대면 회합 진행 예정)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 ※과년도(2018년~2021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 ※2016년과 2017년에 작성·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주 연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주 연장에 따라 1월 3일 (월) 0시부터 1월 16일(주일) 24시까지 평일미사는 백신 접종 여부 및 교적에 상관 없이 선착순 299명 까지 참석 가능하고, 주일미사의 경우 백신 접종 2차 완료자는 대성전으로, 미접종자와 2차 미완료자는 코스트홀로 입장하여 미사 참례가 가능합니다. 미사 참례하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줄을 서 대기하셨다가 '안심콜'과 함께 'QR코드 인증 또는 역학조사용 명단을 작성'하고 체온 체크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성당 전체 개방 : 매일 오전 7시 ~ 오후 9시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성전을 개방합니다.
 - 월~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 주 일 오후 1시 ~ 오후 3시
 - (※토요일,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미개방)
-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지하성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합니다.
-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성직자·수도자 고해성사
 -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언어 :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금요일	15:00 ~ 17:00	상설고해소
토요일		
주 일	08:30 ~ 08:50	대성전 고해소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구 주교죄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축하합니다 》

1월 20일(목)은 본당 영어미사·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및 사목 담당이신 파비아노 레베자니 보좌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 하시도록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

2월 1일(화) 「설」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설 합동 위령미사에 미사 예물 접수하실 분들은 1월 30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 하시거나 설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설 연휴 기간 고해성사 및 본당 사무실 휴무

1월 30일(주일)~2월 2일(수)은 상설 고해성사가 없고, 본당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1월 30일(주일)은 본당 사무실 정상 근무합니다.

※연휴 기간 미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봉헌됩니다.

◎ 불우이웃돕기 떡국용 가래떡 판매

명동대성당 노년봉사부와 만나회에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주일 성당마당에서 설맞이 떡국용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판매 : 1월 16일, 23일, 30일 매 주일 10:30~18:30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

오는 1월 18일(화)부터 25일(화)까지 일주일 간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3,385,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초 축성 및 봉헌 》

2월 2일(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당일 오전 7시 미사, 오전 10시 미사 때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하오니 초 축성 받으실 분들은 제대에 마련된 장소에 초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동안 미사에 사용될 제대초를 봉헌 받습니다. 제대초를 봉헌해주실 개인이나 단체는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명동발전기금' 교구 송금액 공시

지난 한 해 많은 분들께서 봉헌해주신 명동성당 중핵 계획 2단계 기금(☞기부천사 기부금)과 본당 수익금으로 총 723,056,465원이 모였습니다. 이 자금은 서울대교구로 송금되어 '명동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2021년도 본당 미사예물 금액 공시

지난 한 해 교구 여러분께서 본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신 생미사·연미사·합동위령미사 지향 예물금액 526,208,000원을 서울대교구로 송금하였습니다. 본 자금은 서울대교구 특수사목 사제들과 은퇴하신 원로 사제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본당 재정 및 교무금 책정

어려운 시세에도 2021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본당의 재정은 헌금, 교무금, 헌배 봉헌금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헌배 봉헌금이 명동(옛 계성여고) 발전기금으로 교구에 전액 봉헌되고 있으며, 신자분들께서 봉헌해 주시는 헌금과 교무금만으로 본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무금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2022년 1월 10일 기준, 본당에 교적을 둔 세대수는 총 19,594세대이며, 이 가운데 교무금을 책정하신 세대수는 1,425세대로 전체 7.2%에 불과합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2022년도 교무금 책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3-1/9).....	31,058,700
· 구유예물 (1/3-1/9).....	7,084,000
· 주님 세례 축일 헌금.....	20,897,000
· 감사헌금 (1/3-1/9).....	12,664,000
김 요셉 / 문 엘리사벳 / 심 스틸라 오 실비아 / 임 사무엘 / 주 마리아 차 실비아 / 익명(2)	